지역 메아리

고창군 가뭄피해 극복위해 농업용수 급수지원 실시

고창군이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뭄피해 극복을 위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현장방문을 통해 농업용수 급수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7일 군 환경시설사업소에 따르면 영농현장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침출수 운반용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농업용수 급수를 고창읍과 아산면을 중심으로 29회 지원했다.

환경시설사업소 관계자는 "가뭄 해소시 까지 업무추진 후 농업용수 급수지원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연보호부안군협의회 마실길 환경정비 조성

천혜의 사계절 자연환경은 지닌 부안 마실길을 전국에서 찾고 있는 탐방 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초작업과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부안군과 (사)자연보호부안군협의회(회장 홍범철)는 20여 회원들은 지난 13일 더위를 피해 새벽 5시부터 부안 마실길 1코스 마실 동산 제초작업, 나무그늘 쉼터 만들기, 해안에 밀려온 해양쓰레기 수거 등 뜨거운 폭염으로 힘든 봉사활동이지만 지칠 줄 모르며 부안 마실 길 가꾸기에 혼신을 다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행정과 환경단체가 협력해 야생화 식재, 쓰레기 수거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안 마실길을 탐방객들이 자연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전국적인 명품길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 초에는 부안 마실길 2코스(송포~성천)에 붉노랑 상사화가 만개해 진풍경을 연출하며 탐방 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화시기에 맞춰 부안 마실 길 도보여행을 적극 추천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는 가뭄과 폭염으로 개화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부안군 친환경축산과(☎ 063-580-4528·4522)로 문의 후 탐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착한가격업소 이용하세요"

정읍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홍보

정읍시가 최근 지속되는 물가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알리기에 나섰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읍지역 착한가격 업소는 이달 현재 모두 30개소이다. 업종별로는 한식 20, 중식 4, 미용업 5, 세탁업 1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높은 품질과 뛰어난 맛에는 턱 없이 부족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업소들은 서민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는 보통 4,500원이 짜장면을 3,000원에, 7,000인 냉면은 4,000원에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만원에서 1만2,000원대에 달하는 커트는 5,000원, 정장 한 벌 세탁 4,900원 등 착한가격을 자랑한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업소를 말한다. 높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들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전기안전 점검과 위생소독 실시 각종 행정적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쓰레기봉투와 앞치마 등의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

시는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분야별정보→경제기업→시장정보→착한가격업소)에 착한가격업소별 메뉴 등을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정읍소식 21'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각종 행사시 우선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도록 해 실질적인 매출증대 도모로 착한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수시 재심사 실시로 가격과 위생·청결 서비스 등을 점검하는 등 착한가격 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입암면 안정용씨, 폭염 피해 농가에 살수차 지원

폭염과 가뭄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 피해 농가에 살수차를 지원해주는 독지가가 있어 화제다.

입암면 구면 농장 대표 안정용(51)씨가 주인공으로, 안 대표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입암면 신면리에서 돼지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후원에 앞장서오고 있는 인물이다.

안 대표는 최근 한 달 이상 비가 오지 않아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인 소유 차량과 지인 차량(24톤) 총 4대를 동원하여 타들어가는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한 농업용수는 모두 700톤으로, 15농가에 도움을 줬다.

안 대표는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타들어 가는 농민들에게 조금이지만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수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면 관계자는 "애타는 농민들을 위해 직접 나서 준 안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면에서도 농가를 돕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영재교육원, 진로·안전 체험학습 인기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열)은 최근 정읍영재교육원 학생과 학부모, 영재교육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제적 진로 의식 함양과 안전의식 고취, 영재교육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와 정보나눔을 위한 2+1(진로+안전) (관심+나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4차 산업혁명 직업의 종류와 청소년들의 적성을 매칭하여 간접 체험하는 정형화된 진로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전문직업의 직접 체험을 통해 스스로 진로, 직업탐색에 대한 흥미와 목적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완주 꿈꾸는 아이 직업체험관에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재난상황 발생 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 있는 적응능력을 기르고 위기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가정에서 일어나는 있는 안전사고를 가족모두가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무엇보다 영재교육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가족이 참석하여 정읍영재교육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정읍영재교육원에서는 완주에 위치한 꿈꾸는 아이에서 난타맨을 비롯한 36개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실119안전체험관에서는 재난종합체험동 재난월드 체험장에서안전벨트 착용의 필요성, 태풍체험 및 대피요령, 지진체험 및 대피요령, 화재 발생 시 소화기체험, 화재발생 시 대피체험을 실시하여 생활속의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제 체험위주로 체험이 실시되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은 "직업체험을 통해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부모님과 안전체험을 하니 가족이 함께 안전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읍교육지원청 장성열 교육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정읍영재교육원의 교육활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는 일념으로 정읍영재교육원의 교육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바빠'

전병순 부안부군수 폭염대처 현장행정 펼쳐

전 부군수의 공식일정은 아침 7시에 출근해 8시부터 시작된다.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그 날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일일이 지시하며 점검하는 등 한 치의 누수도 허용치 않는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가뭄으로 논 밭이 타들어가자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다.

전 부군수는 폭염대처상황 점검과 읍·면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 부군수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취약계층보호 방문건강관리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각 마을 이장 등을 재난 도우미로 지정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폭염특보 문자메시지 발송, 폭염대응 마을방송, 노약자 방문, 전광판을 이용한 폭염 예방활동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 부군수는 또 부안읍 신흥리 일대 스마트 팜 딸기농장 사업장과 하서면 청호리권역 전북 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장 등 5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과 군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을 살펴 보았다.

전 부군수는 장기화된 폭염에 따른 농업인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 부안군의 주요사업은 현장 중심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수시로 농업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소해 군민이 만족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농진청 라승용 청장, 고창 우수사업장 현장방문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이 고창군 신기술 보급 우수사업장을 찾았다.

최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은 유기상 고창군수, 김학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과 고창군의 신기술 보급 우수사업장인 청맥(주)와 고구마 가공업체인 임성규네 고구마(영)을 방문했다.

보리 가공업체인 청맥(주)를 찾은 라승용 청장은 컬러보리와 고창농축수산물을 이용한 음식(보리바지락밥상, 보리타락죽, 컬러보리떡 등) 시식과 사업장 운영현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맥(주)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흑누리, 자수정, 강호청 등을 이용한 제품으로 국내 컬러보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연 8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2019년까지 3년에 걸쳐 3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컬러보리 단지 100ha를 조성하고 추후 원료곡과 보리 가공제품을 미국, 중국 등지에 50톤을 수출할 계획이다.

라 청장은 이날 고구마를 이용한 말랭이, 젤리, 과자, 선식 등 가공제품 생산하는 임성규네 고구마(영)에도 방문해 관계자, 고구마 재배농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국내육성 품종인 호감미 재배 및 보급에 힘쓰고 있는 임성규 대표는 "호감미는 품질과 재배안정성이 우수하다"며 "이처럼 생산성 높은 국내 고구마 품종이 계속 개발되면 고구마 가공사업도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라승용 청장은 "고구마와 보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식품의 개발과 소비확산이 중요하므로 농업인과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은 우리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한국농업의 미래와 비전을 열어가고 있는 라승용 청장과는 전북라도에 농촌진흥청 이전을 준비하던 때부터 농생명도시구상을 협의하고 한국농업의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인연이 깊다"고 말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창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농특산물"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기업, 전문가들과 손잡고 농생명식품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대한민국 식탁에 고창 농특산물을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